두 임기를 나란히 놓은 숫자, 그리고 전쟁의 숫자

RSS 심층 독해 보고서 · 2026년 11월 8일(일) 수집분

> 승인 피드 21곳 중 20곳 수집 성공(EerdWord는 서버 연결 끊김으로 수집 실패 — 접근 거부(403)가 아닌 전송 오류). 전날 게시 20건 전부 정독 → 분석 9건, 생략 11건(사유 아래). 접근 보류 6곳(The Next Recession, Conversable Economist, Jesus Memoirs, Scott Aaronson, The Comics Journal, Leiter Reports)은 11/8 403 확인 상태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임기의 경제 성적표

[사실] 자유시장 경제학자 도널드 부드로(조지메이슨대 교수)가 내셔널 리뷰에 보낸 투고에서, 트럼프 2기의 첫 21개월(2025년 1월~2026년 9월)과 1기의 같은 기간(2017년 1월~2018년 9월)을 같은 지표로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물가는 개인소비지출(PCE, 연방준비제도가 기준으로 삼는 물가지표) 기준 누적 5.45% 상승으로 1기의 2.98%보다 높았고, 실업률은 4.0%→4.2%로 악화됐습니다(1기는 4.7%→3.7%로 개선). 비농업 고용 증가율은 0.54% 대 2.56%, 제조업 고용은 −0.09% 대 +3.05%, 생산직 실질 시급은 +0.50% 대 +1.73%, 실질 GDP는 +4.06% 대 +4.53%로 모두 2기가 뒤졌습니다. 공공 보유 연방부채는 GDP 대비 96.4%→97.4%로 늘었습니다(1기는 75.6%→75.2%로 소폭 감소). 반면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3.57% 대 3.58%로 거의 같았고, 산업 생산능력은 2기에만 늘었습니다(+2.16%).

[해석] 취임 직후 3개월을 제외해 '전임 정부 물려받기' 효과를 걷어낸 수정 비교에서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저자는 이 격차가 유권자들이 경제 운용에 보낸 평가의 배경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비교는 원인 분석이 아니라 나열이므로, 전쟁·에너지 가격 같은 외부 요인을 얼마나 떼어내야 하는지는 독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처: Cafe Hayek, 11/8 · https://cafehayek.com/2026/11/the-first-half-of-trump-2-0-compared-to-the-first-half-of-trump-1-0.html

[사실] 가계가 보유한 주식·펀드 자산을 2000년(IT 버블 정점)과 비교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주식 보유 규모는 물가를 감안해도 2000년 정점 대비 60% 상승에는 못 미치는 40%대 상승이지만, 가계 순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2000년의 26%를 넘어섰습니다. 부(富)가 1달러 줄 때 소비가 줄어드는 정도(한계소비성향, MPC)는 2000년 3.4센트에서 2019년 기준 2.6센트로 낮아졌다는 연구(Beach·Gamber·Moran 2025)를 인용해, 최근 한 주 동안의 주가 하락으로 줄어든 약 3조 달러의 '종이 자산'은 약 800억 달러의 소비 감소에 해당한다고 계산했습니다. 연간 소비 규모 약 22.5조 달러의 0.4%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해석] 단발성 하락만으로는 소비 타격이 작지만, 하락이 추세로 굳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 글의 요지입니다. 주식 부가 상위 계층에

집중될수록 소비 연동은 약해진다는 점(부의 집중이 MPC 하락의 이유라는 인용 연구)이, 주가와 실물경제의 거리가 벌어지는 요즘 상황과 맞물립니다. 추정치는 필자 자신의 회귀분석(2022~2026년 S&P500과의 관계)에 기반한 계산입니다.

출처: Econbrowser, 11/8 ·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1/equities-held-by-households-2000-and-now

전쟁의 숫자를 둘러싼 계산과 금서 논란

[사실] 독일의 경제 비평 블로그가 독일 매체 멀티폴라의 기사를 재게재하며,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분쟁 연구자 알렉산더 그레이블이 내놓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상자 추정을 소개했습니다. 이하 수치는 모두 그레이블 개인의 간접 추정이며, 원자료가 공개 검증되지 않은 2차 전달 내용입니다. 그레이블의 방법은 절단 환자 수에 과거 전쟁의 '절단 환자 대비 전사자' 비율(1차 대전 영국군 18∶1, 베트남전 미군 11∶1, 대테러전 미군 6.5∶1)을 곱하는 것으로,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 보고서의 절단 환자 9만 3천~12만 명에 자신이 '보수적으로 낮췄다'고 밝힌 비율 4.31을 적용해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를 2024년 11월 말 기준 40만~52만 명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에 대해서는 미국 공영 라디오자유가 입수했다는 유출 자료 속 절단 건수 약 3,200건(2024년 6월 말까지)에 11.02를 곱한 약 3만 5천 명이라고 주장하고, 양측 시신 교환 비율(12.5∶1)을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이 추정은 기존 공개 수치와 큰 격차가 있습니다. 독일 매체 티온라인은 러시아군 전사자를 40만~45만 명으로 보도한 바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2월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를 5만 5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석] 이 글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간접 지표 × 역사적 비율'이라는 추정 방법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비율을 어느 전쟁에서 가져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몇 배씩 달라지고(베트남전 비율이면 100만 명을 넘고, 더 낮은 비율이면 절반 이하가 됨), 기초 자료인 절단 환자 수도 독립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인용된 수치를 확정된 사실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재게재한 블로그와 원 매체(멀티폴라)가 모두 반(反)서방 논조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이 추정이 양측 공식 발표와 주요 언론 추정 어느 쪽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두고 읽어야 할 자료입니다.

출처: Norbert Häring(멀티폴라 재게재 명시), 11/8 · https://norberthaering.de/propaganda-zensur/alexander-grable/

[사실] 같은 블로그는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은 전직 스위스군 정보장교 자크 보의 신간 『우크라이나의 평화』(프랑스어판 2026년 2월, 독일어 번역 출간)에서 서문과 2014년 유로마이단 관련 장을 시 읽기로 게재했습니다. 보는 서문에서 지난해 12월 EU 이사회가 자신의 EU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한 것은 법원 판결 없이 내려진 정치적 조치이며, 이것이 법치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스위스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이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본문

발췌에서 그는 2014년 야누코비치 대통령 축출이 헌법상 탄핵 절차(3분의 2 찬성)를 따르지 않은 '쿠데타'였다는 자신의 해석을 펼칩니다.

[해석] 이 글은 사건 보도가 아니라 저자 본인의 책 일부를 옮긴 것으로, 서술 전반이 저자의 입장입니다. 유로마이단을 '쿠데타'로 규정하는 시각은 서방 주류 서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쟁적 주장입니다. 다만 제재 사실관계(2025년 12월 EU 이사회의 개인 제재, 스위스의 비적용)는 제재 목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안으로, 법 절차 없이 개인 자산을 동결하는 EU의 집행 방식에 대한 법적 논쟁(유럽사법재판소의 이른바 '카디 판례'가 언급됨)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주제입니다.

출처: Norbert Häring(도서 시 읽기), 11/8 · https://norberthaering.de/buchtipps/baud-frieden-in-der-ukraine/

독일 재무장 담론을 풍자하는 사전

[사실] 독일 좌파 매체의 연재 칼럼 '전쟁 수행 능력의 사전' 58회분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분은 메르츠 총리와 군 수뇌부의 발화를 표제어처럼 엮은 언어 비평입니다. 브로이어 국방군 총감(Generalinspekteur)이 TV 토크쇼에서 "2029년까지 우리 군대를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한 발언, 메르츠 총리의 "독일의 가장 좋은 해들은 우리 뒤가 아니라 앞에 있다"는 선언과 비판자들에게 '퇴장'을 요구한 대목, 그리고 총감이 프라하에서 요구한 "전 사회의 총력 결집"이라는 표현을 조목조목 인용하며, 산업·인프라·의료까지 전시 체제에 편입하려는 수사의 확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석] 2차 대전기 독일의 군사 수사(루덴도르프, 선전부)와의 유비는 과격한 풍자이지만, '위기 어휘'가 일상 언어를 침범하는 과정을 어휘 단위로 추적한다는 형식 자체가 이 칼럼의 가치입니다. 매체의 정치적 위치(좌파·평화주의 계열)를 감안하고 읽어야 할 사설 성격의 글입니다.

출처: NachDenkSeiten, 11/8 · https://www.nachdenkseiten.de/?p=158599

학술지 편집 독립을 둘러싼 사임

[사실] 미국당뇨병학회(ADA)의 출판 담당 부회장 크리스티안 콜러가 11월 6일 사임했습니다. 발단은 6월 학회에서 다섯 명의 참석자가 국립보건원(NIH) 예산 삭감의 영향을 다룬 학술지 사설을 배포하다 퇴장당한 사건입니다. 이에 항의해 학회지 'Diabetes Care' 편집진이 9월 10일부터 신규 원고 심사를 중단하는 보이콧에 들어갔고, 그사이 접수된 원고 약 400편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콜러는 사임서에서, 학회 지도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책임 편집장 없는 임시 편집팀을 임명하려 한 것이 직접적 사유라고 밝혔고, 학회 측은 임시 편집진이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석] 정부 기관 수장 연설을 앞둔 행사장에서의 배포 행위를 '행동 강령 위반'으로 처리한 것이 편집 독립 침해로 번진 전형적인 갈등 구조입

니다. 보이콧이 진행되는 동안 저널의 게재 중단 공지가 편집진 모르게 내려갔다는 대목이, 학회 내부의 신뢰 붕괴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의학 분야 핵심 저널의 심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연구자들의 출판 일정 전반이 밀리는 실질 피해로 이어집니다.

출처: Retraction Watch, 11/8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1/07/american-diabetes-association-vp-resigns-protest-editors-boycott/

읽을거리 메모

[사실] 한 경제 블로그의 '요즘 읽은 책' 코너(피드 본문 기준 인용)에는 프레드릭 드보어의 신간 『All in Your Head』가 올랐습니다. 정신질환을 정체성이나 유행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정면으로 다룬 책으로, 평자는 "정신질환에 관해서는 최고, 자폐에 관해서는 같은 망치를 너무 빨리 들이대는" 책이라고 평했습니다. 심각한 정신병 상태의 사람을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는 비판 지점도 소개됐습니다. 이 밖에 콜름 토이빈의 바르셀로나 산문, '하바나 증후군'을 다룬 르포(러시아의 펄스 마이크로파 무기였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쪽), 부커상 최종후보에 오른 M. 존 해리슨의 소설 등이 언급됐습니다.

[해석] 짧은 서평 모음이지만, 정신의학 비판사(샤스)를 끌어와 현재의 '트라우마 문화' 담론과 연결하는 드보어 책의 문제의식은 한국에서도 진행 중인 논의와 겹칩니다.

출처: Marginal Revolution(피드 본문만 인용), 11/8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what-ive-been-reading-298.html

[사실] 일본의 한 서평 블로그는 카페·음식을 소재로 한 자신의 기존 서평 19편을 묶은 가을 특집을 냈습니다. 소설(에쿠니 가오리, 후루우치 가즈에 등)부터 『커피의 교양』 같은 실용서, 개업 3년 내 80%가 폐업한다는 라멘집을 10년간 이어온 전직 프로레슬러의 '실패의 경영학'까지 폭이 넓습니다. 같은 블로그의 또 다른 글은 IT 기초 자격시험(IT패스포트) 대비 만화 해설서를 소개하며, 문과·무자격 30대가 IT 영업직으로 전직하는 경로를 설명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글 중간에 제휴 상품(음료 등) 안내가 들어가는 운영 방식임을 표기해 둡니다.

[해석] '한 권 깊이 읽기'보다 목록형 큐레이션에 가까운 글들이지만, 서평가가 자기 아카이브를 주제별로 재편집하는 방식 자체가 일본 개인 서평 블로그의 한 전형을 보여줍니다. 자격증보다 '업계의 언어'를 먼저 익히라는 조언은 직종 전환 조언으로는 실용적입니다.

출처: 東 莉央の毎日書評, 11/8 · https://books76.hatenablog.com/entry/2026/11/08/140000 · https://books76.hatenablog.com/entry/2026/11/08/060000

읽었으나 싣지 않은 11건 — Noahpinion: '중국 약세론으로의 전환' 장문 에세이 1건은 무료 피드에 도입부만 실려 전문을 확보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유료 구간 존재). — Cafe Hayek: 링크 모음(홀츠-이친의 중간선거 평가전 등 인용), 소웰 인용 단

편, 소웰-버클리 1983년 대담 영상 안내(이상 3건, 단편·인용 중심). Marginal Revolution: 82자 단문(교황 관련 곡), 토요 링크 모음(2건). NachDenkSeiten: 독자 투고 모음 3건(미국 중간선거·독일 대통령직·'울름 5인' 재판 관련), 주간 링크 총람 1건 — 독자 투고와 링크 정리는 원문 기사 없이는 맥락이 잘리므로 생략. 東 莉央の毎日書評: 제휴사 소개가 중심인 전직 상담 홍보 글 1건.